

특별기획



부안농기센터, 꽃길 조성용

여름꽃 7만주 분양 나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려고 오는 15일부터 2일 간 음·면·실·과·소에 메리골드 등 7종의 꽃묘 7만 주를 분양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20만 주 정도의 꽃묘를 분양해 왔으며 사계절 꽃길 조성을 위해 올해는 5만 주를 추가 생산해 공급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분양된 꽃묘를 음·면·실·과·소와 연계해 가로변 화단 조성 및 서림·진동·석동공원 등의 등산로 주변에 식재해 군민과 부안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체계적인 사계절 꽃길 조성을 위해 음·면·실·과·소와 사전 협의를 통해 내년도 꽃 묘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꽃 묘 생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솔잎 국, 구절초 등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화종은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조경용 꽃 묘 보급으로 사계절 꽃길을 조성해 연중 아름다운 꽃이 피는 아름다운 관광부안 이미지를 제고로 다시 찾고 싶은 부안민들께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새만금사업 현장 방문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쉬페로 자스 테 데차)가 14일 새만금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농업·농촌 분야 해외 진출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쉬페로 대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SOC 분야 신규사업 협력요청을 계기로 추진됐다.

박종대 새만금사업단장은 쉬페로 대사에 새만금방조제 축조과정과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주요추진현황을 설명하며 "새만금방조제 최종연결공사는 최대 수심 54m에 초당 유속 7m에 달하는 세계 간척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공사"였음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간척 기술을 소개했다.

쉬페로 대사는 세계 최장 방조제의 장대한 감탄하며 신사배수검문 및 조차실, 전망대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새만금 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쉬페로 대사는 18일까지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단지과 지하수 사업현장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복지여성과·감곡면

방울토마토 수확 일손 보태

정읍시 복지여성과와 감곡면 직원들은 14일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감곡면 산자마을 농가를 찾아 방울토마토 수확을 도왔다.

이날 직원들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업도구를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수확을 도우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직접 수확한 방울토마토도 구입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농가주는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이었는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보태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농기센터 약용시범포장 운영

자체예산 2400만 원 확보... 초석잠·작두콩 등 재배 3개소 0.9ha 조성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농가소득 향상과 연계할 수 있는 약용작물을 발굴하려고 약용시범포장을 운영 소비자 기호 맞는 다양한 약용작물을 재배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예산 2400만 원을 확보해 약용작물 시범재배단지 3개소 0.9ha 조성해 부안군에 한방약초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약용시범포장은 새 기술 실증 시험 농장에 0.11ha 규모로 감초, 지초, 지황 등 10여 종의 약용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농가 및 귀농귀촌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 지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것을 시험 재배용으로 분양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약용단지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된 작물로는 초석잠, 작두콩, 작두콩 등이 있다.



약용단지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된 작물로는 초석잠, 작두콩 등이 있다.

찾는 다양한 약용작물 시범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6ha 약용단지 조성을 목표로 농가소득과 연계할 작물을 발굴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참석자들은 "자연 그대로를 접목시킨 친환경적이고 정읍시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휴양단지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림휴양단지 친환경·지역특성 살려야”

정읍시, 조성용역 최종보고회

정읍시는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림휴양단지조성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중간보고회 때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과 관련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창현 전북대 산림환경과학과 교수와 배정환 정읍국유림관리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정읍시만의 특색 있는 휴양단지 조성과 향후 발생될 문제

점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성기 시장은 "명품 자연휴양림을 조성,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고 자문을 달라"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은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산림휴양시설이 필요하나 과도한 시설투자로 불필요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를 접목시킨 친환경적이고 정읍시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휴양단지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읍시보건소, 초등생 대상

건치 퀴즈왕 선발대회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13일 정읍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건치퀴즈선발대회를 가졌다.

보건소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치아의 조기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날 학생들은 치아 건강상식을 주제로 한 열띤 경쟁을 벌였다. 그 가운데 김서연(6-2)과 박다은(5-1) 학생이 각각 퀴즈왕과 아차상을 수상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어릴 적 치아관리가 평생 건강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구강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1천6530여㎡의 복분자 밭에서 구슬팍을 출했다.

정읍시 세정과·태인면직원들 일손 돕기

200여명 복분자 수확 도와

정읍시 세정과와 태인면 직원 200여명은 지난 13일 이모(76)씨의 복분자 수확을 도왔다.

이날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1천6530여㎡의 복분자 밭에서 구슬팍을 출했다.

태인면 관계자는 "기계가 불가능한 일반 밭농사와 달리 복분자수확은

수작업을 많이 필요로 한데도 불구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확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손 돕기에 나선 직원들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미혼직원 의식변화' 위탁교육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미혼직원을 대상으로 의식변화 위탁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위탁교육은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에서도 가장 낮으며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저출산의 문제점이 많이 인식되고 결혼에 대한 의식변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된다.

1일차는 예원예술대학교 최낙관교수의 "한국사회 저출산 대책과 사회발전"이라는 강의를, 결혼컨설턴트 이재복 강사는 "연애하듯 소통하라" 등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게 되며

2, 3일차에는 미혼남녀 직원에게 미션투어를 실시하여, 결혼가치관에 대하여 꼼꼼히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김제시는 공직자의 직무능력향상,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안보 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해져가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은 "이번교육을 통해 미혼직원들이 결혼적령기에 결혼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금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설명회

김제시 금산면(면장 김황중)은 지난 13일 금산면사무소에서 시의원 및 한국 농어촌공사 관계자, 추진위원장, 배후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난해 10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총 사업비 42억 5천만원)됐다.

그 내용으로는 문화센터 건립, 원형시장 진입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어울림 마당, 할머니 미니마켓, 맛집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

획이다. 김황중 면장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 공유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의 선정 및 추진을 위해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대한 큰 틀을 결정하고 오는 7월부터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사업 확정 및 승인을 얻은 후 본격적인 농촌 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안등 191개소 신규 설치

김제시는 주민의 야간 보행권을 확보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이면도로와 마을안길 등 취약지역 191곳에 보안등을 새로 설치했다.

김제시 관내에는 12,000여곳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흉악 범죄 예방과 도심 취약지역 및 야간통행 불편지역 등에 시민들의 보안등 신설요청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김제시는 지난 1월 보안등 신설지점수조사를 실시하여 읍면동 191곳의 취약지역을 정하고 지난 4월 설치 공사에 착수해 6월 초 준공한 것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간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꾸준히 보안등 신설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번 교육은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가 개최했고 여성회관 3층 교육장에서 여성단체와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홈네저 자격취득 교육 개강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이론·실습 위주로 진행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순애)가 14일 여성회관 3층 교육장에서 여성단체와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홈네저 자격취득과정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실시하는 홈네저 자격취득과정은 전북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의 주요 내용은 가사와 육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이론과 실습위주로 진행되며, 천연세제 활용법, 친환경EM발효액 만들기, 간단요리 아이디어 토론 및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강사로 초청된 백효녀 한국

정리수납전문가협회 대표는 정리수납을 비롯한 홈케어 전문 지도 강사로 전국의 각지를 돌며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홈네저 자격취득과정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실시하는 홈네저 자격취득과정은 전북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의 주요 내용은 가사와 육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이론과 실습위주로 진행되며, 천연세제 활용법, 친환경EM발효액 만들기, 간단요리 아이디어 토론 및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